

# 고등 교육 국제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 다문화 교육 가능성 검토

양정아 (성균관대학교)

### 논문초록

국제화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세계질서의 개편에 따라 고등 교육기관에서 해야 하는 거대한 담론이 되어 버렸다. 국제화는 자연스럽게 힘의 논리로 흐르고, 그 상황 속에서 소수자의 목소리 즉, 소수의 문화를 가진 학내 구성원인 외국인 유학생의 목소리는 약화 될 수밖에 없다. 다문화 교육은 이런 소수자의 목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며, 다수가 다양한 문화적 감각, 간문화적 감각을 기르게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강자의 논리로 흘러가는 국제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고등 교육에 적합한 다문화 교육은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의 이론을 살펴보면, 크게 동화주의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문화주의를 들 수 있다.

동화주의는 공적 영역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려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개개인이 이전에 지녔던 문화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에 편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평등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에 주목하고 공적 영역에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수 문화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동화주의보다 더 깊은 이해를 보인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사상 속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결국 차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도덕적 갈등을 초래하고, 자유주의적 문화에 기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문화집단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노출한다. 현실적으로는 소수문화를 지닌 집단이 공간적 위치를 점유하게 되면서, 주류와 분리된 자원의 한계로 인해 그 지역을 게토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발생시켰다.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의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사상을 전개한다. 상호문화주의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문화의 역동성에 주목한다. 각각의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는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들 간의 차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상호문화주의는 이 차이에 대한 변화에 집중한다. 이 차이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개인이다. 그러나 이 개인은 개인주의의 개인이 아니라 문화 사이의 관계망 속에 놓여 있는 개인이다. 이 개인은 다른 문화와의 소통과 접촉을 통해서 문화 간 차이를 이해하고 관계망 속에서 차이의 변이를 촉진시킨다. 이 변화 속에서 태두리 지워지는 것은 도덕이다. 사회의 대다수가 동의하는 도덕이 이 소통의 기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도덕 속에서 개인은 타자의 문화를 만들고 차이를 변화시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상호문화주의를 통해 우리는 고등 교육 국제화가 가져온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의 개인들이 새로운 문화적 주체가 되어서 고등 교육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더 나아가 상호문화주의는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경이 말하는 도덕의 가치를 옹호하며, 다양함이 하나의 문화를 이루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성경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를 추구하는 기독교 고등 교육기관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하겠다.

주제어: 다문화교육, 상호문화주의, 동화주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 I. 서론

1980년대부터 교육 분야에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대학교육의 국제화는 국제적, 다문화적 측면을 학제에 도입하는 '학내 국제화'의 측면과 학생 및 연구자, 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국제적 활동'의 측면을 포함한다.

국제화는 세계화와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분되는 개념이다. 세계화가 국가들이 통합(more integrated)되어 가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라면, 국제화는 국가들이 연계(more interconnected)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해외에서 고등 교육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유럽의 볼로냐 프로세스 이후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국제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고등 교육의 국제화는 조직적으로 대학의 연구 및 기능을 국제적 차원이나 관점으로 통합시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국제적인 마인드를 지니는 것이다. (Knight, 2003) 다시 말해서, 고등교육의 국제화란 국제적 연계를 위해 학내에 국제적이고 다문화적인 측면을 도입하고, 인력자원과 연구자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해 나가며,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활동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고등 교육의 국제화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함께 존재한다. 고등 교육의 국제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국제화가 이미 벌어진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에, 대학은 지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자로서 국제화의 기능을 감당하고, 동시에 국제적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수준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용현, 1996 ; 강무섭 김재웅, 1987) 국제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국제화는 서구화를 의미하며, 국제화의 추구는 개발 도산국의 이념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유럽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비판하는 이들은 볼로냐 프로세스가 교육을 하나의 산업으로 평가한다고 간주한다. ( Yang, 2002 ; Lincicom, 1993)

볼로냐 프로세스 본부는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의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 통해 수입이 상승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들은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고, 국가차원의 재정 지원을 줄이는 동시에, 유학생 숫자를 늘려가는 학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학을 상품으로 유학생을 소비자라 간주하는 것이다. 볼로냐 프로세스가 대학을 상품으로 간주하고 유학생을 소비자라 보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일환이라는 사실은 볼로냐 프로세스 이후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이 대학 등록금 상승과 함께 교육 분야에 정부 지원을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고, 학생교류제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70% 학생이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인기 학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 반증해 준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국제화 역시 자본과 구조 개혁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불어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들 중 상당수가 유럽의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상당한 유사하다. 이에 국제화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국제화 정책의 문제를 알아보고 대안으로서 다문화 교육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II. 본론

### 1. 국제화의 핵심과제로 추진된 외국인 유학생 정책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교육 개방 압력을 겪으면서, 200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

이 검토되었고, 2004년 구체화 되었다. 특히 2004년 시작한 Study Korea project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의 가파른 상승을 가져왔다. (교육인적자원부, 2004) 2001년 당시 11,646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유학생은 언어연수 교환학생, 학부, 대학원 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2011년 89,537에 이르렀고, 2014년 84,891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과 관리 가이드 라인, 그리고 안내시스템과 입학관리 컨텐츠들이 확장되었으며, 최근 '외국인 유학생 콜센터'와 '유학생종합지원시스템'이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아직까지 양적 증가에 비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연구 및 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오히려 반한감정을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한국경제기사, 2013)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9월 21일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선진화 방안 (2011.5)'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 2011) 현재까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에 따른 관리 및 정책적 대응이 급선무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와 정책이 하드웨어의 측면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화를 지향함과 동시에 무역수지 개선을 이유로 Study Korea project 정책들을 마련하여,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하였다. 하지만 왜 유학생을 유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치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개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화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학생들은 그들이 가진 문화적 차별성만큼 다양한 필요와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같은 문화권에서 성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유학생 정책은 그러한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고등 교육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조류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했지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한국 대학 사회로 편입시켜야 할지에 대한 목적과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면, 그들을 어떠한 교육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시키고, 대학 사회에 편입시킬지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고등교육의 국제화 정책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이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 하지만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적 이동을 선택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소비자로서만 간주하고 경제적 이익, 혹은 근시안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하는 노력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유학생들을 학내 소수 그룹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 2. 다문화 교육과 고등 교육 국제화의 문제

고등 교육의 국제화는 다문화 교육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흔히 두 개의 관계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생각한다. 현상적으로 고등 교육의 국제화를 통해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혹은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고등 교육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국제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등 교육의 국제화는 대학의 연구 및 기능을 국제적으로 표준화 하고 통합해 나가고, 학생으로 하여금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추도록 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소수 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제화가 진행된다면 국가 간 고등 교육 기관에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수업을 함께 듣고 공부해 나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고등 교육의 국제화의 문제는 국제화 자체에서 파생되는 문제와 시행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등 교육의 국제화는 다양한 세계의 고등 교육기관을 표준화하고, 통합해 가는 활동이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세계의 구성원들이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서 교류하고, 그들을 사상을 통합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화의 가장 큰 과제는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문화적 이유에 따라 다르게 발달해 온 각 사회의 고등 교육을 국제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을 확대 시키고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등 교육 기관이 속한 사회 즉, 각 사회의 문화가 가진 독특성은 무시 되고 약화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국제적 표준에 쉽게 적용 가능한 사회과학이나 과학은 국제화에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발전되고 주목받을 수 있지만, 영어로 변용이 어려운 한문학이나, 국문학 혹은 한국 철학의 경우 연구 성과가 많이 나타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각 사회의 문화는 다른 역사와 맥락을 통해 발달해 왔고, 이것을 자양분으로 발달한 학문의 경우, 국제 기준에 맞춰서 표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고등 교육의 국제화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진 소수 문화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축소해 버린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고등 교육 국제화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고등 교육을 국제화 한다고 할 때, 그 표준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실제로 국제화 과정은 영어와 영어권 학문이 기준이 되고 있으며, 서구 중심주의에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로, 학생의 이동이 가져온 대학 간 서열화와 집중현상의 문제이다. 국제화 현상의 발생으로 학생들은 국경을 넘어선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나, 그로 인해 대학 평가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가 진행되게 되었다. 대학들은 국제적인 표준에 따른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좋은 평가를 받은 대학들은 많은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대학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고등교육 국제화의 논의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재편에 따른 자본과 힘의 논리를 가장 큰 논리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 논리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그리고 학내에서 소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소수 문화는 무시될 밖에 없다.

다문화 교육은 국제화와 상반되는 이유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소수문화에 대한 존중이다. 다문화 교육은 내부에 존재하는 소수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 사이의 간문화성을 기르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다문화 교육은 소수자 운동과 맥을 같이 하였고, 오히려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주도되는 국제화 현상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 교육 분야에서 국제화와 다문화 교육이 함께 발달 할 수도 있지만, 국제화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다문화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문화 교육을 잘 시행한다고 해서 국제화를 잘 시키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국제화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을 방어하고 고등교육의 발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은 필수불가결이다. 다문화 교육은 국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학내 소수 문화를 인정하고, 학내에 존재하는 문화 간의 간문화성을 기르는 다문화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인 고등 교육의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화 사업 속에 증가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

진 학내 구성원이 자기 의견을 마음껏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대학은 그리고 정부는 고등 교육을 통해 유입된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내 구성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해 주고, 학문적인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고등 교육의 발전이라는 정당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

국제화 과정이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속에서 강자의 논리로 흘러가고 있고, 반대로 다문화 교육은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개는 대칭 지점에 있지만 동시에 이 두 개의 논리는 서로를 보완 가능하다. 그렇다면 대학교육의 국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가?

### 3. 동화주의 및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한계

다문화교육은 다문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다. 다문화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동화주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화주의는 초기 유럽에서 채택했던 모델로서, 소수 그룹을 다수 그룹의 문화로 동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모델은 공적사회 문화의 단일성을 강조하며,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 정부는 인간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개개인의 종교나 문화와 같은 특징들이 공적 영역에서 드러나게 되면, 종교나 문화에 따른 특권이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적 영역에서는 개개인의 종교, 문화와 같은 특징이 드러나는 안 되고, 공적영역은 가치중립적 이어야 한다. 그것은 귀족이나 교회, 성직자의 특권을 보장했던 과거의 차별에 대한 정당한 방어이기도 하였고, 이것이 깨지게 되면, 차별이 발생하므로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 되었다.

이 모델은 사적인 영역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기회의 평등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이론은 인간이 가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영역에서 개개인은 그들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져온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야 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화주의는 소수 그룹의 사람들이 공공 영역에 있어서 다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소수 문화의 사람들은 공적 영역에서 다수 문화에 걸로 보기에 동화되어 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문화가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이상, 내용면에 있어서 동화는 어렵고, 그래서 많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그들이 공공 영역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사회에 불만세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몇 년 전에 일어난 파리 외곽의 이민자 젊은이들의 폭동은 그들의 불만을 드러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영미권에서 시작되어 한국사회 다문화주의의 대표적 이론으로 차이에 관한 인정을 강조한다. 동화주의에서는 차이에 대한 강조가 차별로 이어 질 수 있고, 차이는 공적영역에서 특권과 차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할 가치로 인지된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서는 이 차이가 실질적인 평등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차이는 동화 이전에 나타나는 본연의 것이다. 문화 간의 차이는 사회 문화가 발생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며, 실제적인 자유와 그로 인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차이에 대한 인정이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이 인정을 기반으로 정치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들의 이런 주장은 천부인권에 대한 다른 이해로 발생한다. 천부인권은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

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차이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동화주의자들이 공공영역에서 있어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반대했다면, 자유와 평등의 본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차이를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이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차별과 그로 인한 불평등이 고려 될 때, 인간은 동등하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 받을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천부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자들은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그룹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 사회는 그들의 주류 문화와 다른 다양한 문화를 가진 그룹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그룹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정치적인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 소수그룹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이 보장되는 것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인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 그룹이 독특한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 간의 차이를 받아들임으로서 그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방지하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이점을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캐나다와 미국과 같이 이민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와 달리, 사회의 동일성이 강조되고, 그로 인한 연대성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로 여기고 있는 국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

첫째, 사회에 다양한 문화의 그룹을 인정하고, 그들이 공적 영역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과연 한국 사회와 같이 문화 정체성 혹은 지향해야 하는 문화적 가치, 연대성이 강조되는 사회에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공적 영역에서 다양한 그룹의 문화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문화적 가치와 지향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나타난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나라의 문화적 가치 자체가 다양성의 추구하고, 다양성을 국가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류의 문화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의한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한국과 같이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문화 정체성이 분명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가치를 기반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수용이 쉽지 않다.

둘째, 문화의 어떤 측면까지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 된다. 소수 그룹의 문화는 역사 문화적으로 다른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서구가 개인과 사회를 분리시키고, 개인의 선택을 중시 여겼던 것과 달리 관계성을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문화를 형성해왔다. 한국의 문화는 개인을 사회와 분리시키고, 개인이 관계와 동떨어져서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주류의 문화가 서구의 문화이고 한국이 소수 문화라고 가정해 보면, 주류 사회에서 관계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인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관계성 중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들까지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개인의 가치가 관계를 위해서 희생되는 것을 볼 때도, 소수문화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받아 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세 번째, 계토화 현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서는 문화적 공동체를 인정하고 그들이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적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장려한다. 인간은 본질상 비슷한 문화에서 거주할 때 안정감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그룹을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적 공간을 인정해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거주하게 된다.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살게 되면, 소수의 대표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주류 집단과의 교류를 원하지 않게 된다. 언어적 문화적으로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사회의 자원(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부동산과 같은 경제적 자원, 학교와 같은 교육적 자원 등)은 사실상 주류 집단에서 소유하고 있다. 그들이 분리를 선언하고,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주류 집단과 교류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류 집단이 허용한 매우 적은 자원만을 가지고 거주해야 한다. 그러면 직업 기회와 거주 기회, 교육 기회와 같이 사회적으로 누려야 할 자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지역은 슬럼을 이루게 되어, 공간적으로 계토화가 진행되게 된다.

고등 교육 정책을 동화주의로 가게 되면, 소수 문화를 가진 학생들은 언어적,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차별 당하게 된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로 적용하게 되면, 그들의 문화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끼리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주류와 소통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이루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 4. 대안으로서의 상호문화주의

고등교육 국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 교육의 이론적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상호문화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상호문화주의는 상호 문화 간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문화주의의 기본적 가정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유사하다. 천부인권을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인정하고 그로인한 차별과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상호문화주의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차이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서 상호간에 교류를 강조한다.

상호문화주의는 문화는 역동적인 것인 것으로 생각한다. 문화 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나 이 차이는 문화의 역동성으로 인해서 변화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차이를 인정한 후,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차이를 변용시켜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차이를 인정하고 변용시킬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상호문화주의에서는 그것을 개인이라고 생각한다. 상호문화주의는 개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각 개인은 문화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발견하며, 그리고 그것을 변화 시켜 나갈 수 있는 주체이다. 이때의 개인은 개인주의의 개인과는 다른 존재이다. 상호문화주의에서의 개인은 관계망 속에 놓여 있는 개인이다. 상호문화주의에서의 개인은 관계망을 통해서 문화 공동체에 속해 있다. 개인이 속한 문화 공동체는 관계망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고, 관계망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변화 가능한 그룹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각 개인은 부모의 자녀며, 자녀의 부모이며, 형제이며, 친구이다. 개인은

주변의 관계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문화가 형성된다. 그렇게 관계를 중심으로 비슷한 문화를 가진 공동체가 형성된다.

상호문화주의가 개인에게 주목한다고 할 때, 개인은 이 관계 속에 놓인 개인이다. 개인은 관계망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형성한다. 이 개인을 변용의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와의 접촉이 필요하다. 각 개인은 다른 문화와의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다른 문화와의 차이를 인지하게 된다.

문화 간 차이를 발견한 개인은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문화와 비교하고 결합하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서 개인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게 되고, 개인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그가 속한 관계망으로 확대되게 된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새로운 문화를 끊임없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문화주의는 개인을 변혁의 주체로 상징하고, 이 개인이 매일의 생활을 하는 공간인 학교와 회사, 지역 센터, 아파트 거주자 모임과 같은 모임에서 다른 문화와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킬 것을 강조한다.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개인은 다른 문화 속에 개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결과 차이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차이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지 판단하게 되고,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변화 시키게 된다. 이 개인들의 노력으로 인해 사회 전체의 다양한 문화는 이질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호문화주의는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을 상호 작용의 기반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모든 사회는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도덕을 가지고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사회의 도덕을 상호작용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 도덕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각 사회마다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상호문화주의는 이 도덕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덕이 무너진 상태에서 소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호문화주의 모델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른 문화를 가진 구성원들과 자주 접하고 그들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그들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탐색하고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화적 정체성이 강한 사회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게다가 상호 문화주의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도덕을 기준으로 상호 작용한다는 점에서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의 공적 영역에서 드러나게 하고 소수 문화에 속한 이들의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한국 사회는 문화 정체성이 강하고 장유유서와 효와 같이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이런 도덕적 기준이 다문화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상호문화주의는 이런 도덕을 기반으로 서로 간의 문화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문화들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 적절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 준다.

동화주의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한계, 그리고 상호문화주의를 비교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를 가정해 볼 수 있다. 동화주의는 학교를 공적 공간으로 한정하고, 각 가정에서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생활을 영위했던 학생들이 학교에 올 때는 그런 문화적 특징을 버리고 나타날 것을 요구한다. 영어를 쓰는 사회라고 가정한다면, 한국어를 쓰고 밥을 먹던 학



생이 학교에서는 영어를 쓰고, 빵과 스프를 먹을 것을 강요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이슬람의 특징인 히잡을 쓰고 학교에 등교 했던 학생이 자퇴당한 사례는 동화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이것을 불평등이라고 보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던 문화의 모습 그대로 학교에 등교 하는 것을 인정한다. 밥을 먹던 한국인 학생은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올 수 있고, 이슬람 학생은 히잡을 쓰고 등교할 수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문화에 속한 학생들을 모아서 그들이 그룹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리고 학교 공식행사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특징을 발표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한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비슷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과 다니는 것을 즐기게 된다. 학교 식당에서 흑인 학생들이 흑인 학생들끼리, 동양인 학생들이 동양학생끼리, 그리고 백인 학생들은 백인 학생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다니고, 밥을 먹는 장면을 보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 된다. 백인 학생이 동양인 학생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일이 된다.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그 그룹들 사이에 우열을 가리게 된다. 운동을 좋아하지만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흑인 학생,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교사들에게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동양인 학생, 질문을 열심히 하고 중산층에서 성장한 백인학생으로 나누게 되고 그렇게 고정관념이 형성된다. 뛰어난 동양인이나 흑인 학생이 백인 그룹과 함께 다니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룹은 다양하게 구성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이다.

상호문화주의는 공적 공간에서 소수문화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한다. 상호문화주의 또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한다. 하지만 상호문화주의에서는 학생들을 비슷한 문화를 가진 그룹으로 묶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섞여서 수업을 받고 섞여서 다니는 것을 장려한다. 반을 구성하거나, 동아리를 구성하거나, 혹은 식사자리를 구성할 때, 상호문화주의는 의도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동시에 교육과정에서 상호문화주의는 그들의 문화적 배경이 그들이 가진 관계망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성되었음을 각 개인인 인지하게 한다. 학생들 각각이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불편함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교사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학교를 넘어서 공간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게 하고, 서로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기인했는지를 이야기 나누게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문화적 차이는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학생들이 새로운 학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 과정에서 상호문화주의는 학생 스스로 모두를 위한 도덕적 기준을 인지하고, 만들고 지켜 나가도록 한다. 문화적 충돌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그 테두리에 분명한 도덕적 기준을 설정한다. 교사의 말을 경청하는 것, 학교를 빠지지 않는 것, 친구들끼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쓰는 것과 같이 도덕적 틀을 설정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분명한 한계선을 둔다.

상호문화주의는 한국의 고등 교육 속에 새로운 문화집단을 인정하고, 주류 집단의 구성원들이 비주류 집단의 구성원들과 교류하게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고등 교육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학생들은 주류 문화에서 배제 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주류 집단은 유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배우고 학습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국제화 사업 속에 놓여있는 기독교 대학들에게 상호문화주의는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첫째로, 상호문화주의 모델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 22 : 39)”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가장 합당한 모델이다. 성경 속에서 네 이웃은 사회에서 소외받은 약자와 소수자들을 지칭하곤 하였다. 소수 문화를 가진 유학생들은 고등 교육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으며, 이들을 배려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상호문화주의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그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들의 문화를 우리 문화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그들이 함께 변화 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이론이다.

두 번째로, 상호문화주의는 합의된 도덕을 강조한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성경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 학교에서 상호문화주의는 합의된 도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성경적이다. 기독교는 교회 내에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인정한다. 하지만 그 문화와 가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과 같이 존재하는 교회를 꿈꾼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 된 몸으로 거하는 것이 교회라 비유하였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은 각종 방언을 말하면서도 하나 된 성령을 경험하였다. 기독교는 다양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 다양함을 근거로 하나 된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상호 문화주의는 기독교 학교에 적절한 이론이다.

### III. 결론

현재 한국 고등 교육에서 국제화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세계질서의 개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실시해야 하는 필연적인 사안이 되어 버렸고, 이에 따라 급격하게 추진된 국제화 작업은 정당성의 부재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국제화는 자연스럽게 힘의 논리로 흐르고, 그 상황 속에서 소수자의 목소리 즉, 소수의 문화를 가진 학내 구성원인 외국인 유학생의 목소리는 약화 될 수밖에 없다. 다문화 교육은 이런 소수자의 목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며, 다수가 다양한 문화적 감각, 간문화적 감각을 기르게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강자의 논리로 흘러가는 국제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국제화가 강화 될수록 고등 교육에 있어서 다문화 교육을 더 심도 있고 연구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요청된다.

그렇다면 한국 고등 교육에 적합한 다문화 교육은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의 이론을 살펴보면, 크게 동화주의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문화주의를 들 수 있다.

동화주의는 공적 영역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려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개개인이 이전에 지녔

던 문화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에 편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평등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에 주목하고 공적 영역에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수 문화를 옹호한 다는 점에서 다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동화주의 보다 더 깊은 이해를 보인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사상 속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결국 차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도덕적 갈등을 초래하고, 자유주의적 문화에 기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문화집단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노출한다. 현실적으로는 소수문화를 지닌 집단이 공간적 위치를 점유하게 되면서, 주류와 분리된 자원의 한계로 인해 그 지역을 게토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하겠다.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의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사상을 전개한다. 상호문화주의 또한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인지하고 차이를 공적 영역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상호문화주의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문화의 역동성에 주목한다. 각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는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들 간의 차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상호문화주의는 이 차이에 대한 변화에 집중한다. 이 차이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개인이다. 그러나 이 개인은 개인주의의 개인이 아니라 각 문화의 관계망 속에 놓여 있는 개인이다. 이 개인은 다른 문화와의 소통과 접촉을 통해서 문화 간 차이를 이해하고 관계망 속에서 차이의 변이를 촉진시킨다.

이 변화 속에서 태두리 지워지는 것은 도덕이다. 사회의 대다수가 동의하는 도덕이 이 소통의 기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도덕 속에서 개인은 타자의 문화를 만들고 차이를 변화시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상호문화주의를 통해 우리는 고등 교육 국제화가 가져온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의 개인들이 새로운 문화적 주체가 되어서 고등 교육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더 나아가 상호문화주의는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경이 말하는 도덕의 가치를 옹호하며, 다양함이 하나의 문화를 이루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성경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를 추구하는 기독교 고등 교육기관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 모종린(2013). 「이민 강국 : 인재 전쟁 시대의 이민 정책」 서울: 한국학술정보.
- 오경석 외(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 장인실, 김경근(2012).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학지사
- James A. Banks(2008). 다문화 교육입문」 모경환, 최충옥, 김명정 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조엘칸(2002). “코스모폴리탄적 실천으로서의 윤리학” 『비교문학연구』 . 8(2).
- 김양선, 송재현, 이은혜(2011). “대학의 국제화 전략 및 성과 분석: 자원기반관점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20(3): 69-97.
- 김혜숙(2006). “학부 교육 국제화의 교육 정치학” 『국제정치학연구』 13(1): 1-34.
- 박성원, 신동일(2014).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 공동체 참여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7(1): 103-158.
- 엄상현, 변기용(2012).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42. 123-155.
- 이병식(2006).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분석: 실증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한 종합적 접근.” 『교육과학연구』 . 37(3). 279-298.
- 이인영(2011). “외국인 유학생 실태분석과 효과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실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순민(2010). “성공적인 대학 수학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 조수현(2010). “부산·경남 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서비스와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인제대학교.
- 한국경제기사. 2013.4. 일자 : 2012년 11월 5일 국회다정다감포럼 Kissa (주한 유학생 지원 협의회) ‘제 2회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발전 대토론회 유학생정책의 글로벌 스탠다드 I Study Korea Project를 진단하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1. 9. 22일자 보도자료.
- Jennifer Kerzil, Genevieve Vinsonneau (2004). *L'interculturel : Principes et realites a L'ecole*. Sides edition-IMA edition.
- James Banks, Cherry A. McGee Banks.(Ed.). (2003).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 and Perspectives*. New York: John Wiley & Sons.
- Maddalena de Carlo (1998). *L'interculturel*. Paris: CLE International.
- Martine Abdallah-Pretceille (1999). *L'Education interculturell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Patrick Savidan (2009). *Le multiulturalism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Will Kymlicka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 Kymlicka (2007). *Multicultural Odysseys: Navigating the New International Politics of Divers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ichael Dunne and Tiziano Bonazzi (Ed.).(1995). *Citizenship and Rights in Multicultural Societies*. Staffordshire: Keele university press.